

# 방재기능의 선진화추구

理事長 李 大 鎔

1960년대 후반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해오던 우리나라는, 1983년의 세계경제 불황속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약 9%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해방후에서 제 2 공화국말까지의 약 15년간, 공업 황무지였던 이 땅위에는 1960년대 이후 수 많은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생산공장들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고, 오막살이 초가집이나 초라한 기와집들이서 있던 곳에는 대형 고층 빌딩들이 거창하게 들어서 이 나라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화재의 피해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대형화재의 위험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공장을 위시한 건물이 대형화되면 될수록 이에 비례해서 화재의 규모도 대형화되며, 유류의 사용 증가, 전기의 사용 증가, 가정용 전기 제품의 종류 증가 등등, 여러가지 선진화는 이에 비례해서 화재발생의 빈도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에 의하면 歐美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모든 선진국의 화재피해액 증가율은 그 나라의 GNP성장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1978년~1980년 기간중 美國의 GNP성장은 연 평균 10.3%인데 비해 화재피해액 증가율은 연 평균 18.5%이고, 英國의 GNP성장은 연간 16.7%인데 비해 화재 피해액 증가율은 연 평균 23.5%이며 기타 모든 선진국들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각 선진국들은 화재에 대한 방재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화재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新灘津에서 일어난 豊韓紡織의 화재는 이 공장의 약 75%를 잿더미로 만들고, 약 15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줄지에 700여명의 종업원이 실업자가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 화재에 이어 11월 6일에는 서울의 新德山제과공장의 화재로 약 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12월에 들어서는 光州의 日新紡織공장에 불이 나서 약 50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게 하였습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불완전한 인간사회에서 화재는 계속 존속할 것이며, 또한 전술한 바와같이 인간사회의 산업시설과 생활수단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화재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며 무서운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화재에 대한 방재기능의 주요부분을 점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이를 실시하는 점검 전문가의 점검 방법의 연구 개선과, 신형점검기기의 도입 또는 필요한 방재자료의 수집, 그리고 방재선진국의 연구 결과의 자료 전파 등등에 의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일반 국민들은 화재에 대한 방재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며, 안전점검에 협력하고, 모든 보험인들은 방재선진화를 위해 더욱 심력을 기울여야하며 국가 관제기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안전 점검지가 국가방재 유관 공무원 및 보험인, 그리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방재선진화에 기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